

분류	전도학- 전도자의 삶 실현(4)
제목	전도자의 삶 실현(4)- 전도자의 질문(4)- 우리교회는 정말 안될 것 같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2:20
일시	2012년 2월 4일
장소	예원 교회
강사	류광수 목사 (정리: 차동호 목사)
주제어	

♣ **녹취 자료** ♣

♣ **서론**

▶전도자가 제일 먼저 되어야 될 현상이 갈2:20절이다. 또 어떤 면에서 기도도 이것이 기도다. 또 전도가 뭐냐고 하면 이 사실을 말하게 되는 것이 전도다.

▶우리가 지금부터 **전도운동을 할 때 무엇을 마음속에 염두에 뒀야 하나?** 개인이 해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해도 마찬가지다. 제가 전에 얘기했는데,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데 다 그냥 있는데 한 놈이 적고 있더라. 저 놈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다. 얼굴도 바르게 생겼다. 알고 봤더니 남송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전교 1등이더라. 나중에 알았는데 김광일 장로 아들이더라. 그랬구나 하며 저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다. 착실히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가 관사가 되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장에 갔다.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더라. 입구에 장로님이 계시고 안에는 사모님이 계시고 이쪽에는 신랑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니가 장로님이 바쁜데 오셨다고 반기더라. 초등학교 때 본 이 녀석이 관사가 되어서 결혼하는데 얼마나 기쁘는가? 그래서 저보고 인사를 하더라. 아이들은 눈치가 빠르지 않은가? 사람이 많이 왔는데 제가 인사를 하니가 권사님이 감사하다면서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그 눈이 저를 제대로 못 본 눈이더라.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냥 감사하다면서 지나쳤다. 그래서 신랑인 이 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류광수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니가 또 감사하다며 그냥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꾸 엄마보고 류광수 전도사님이라고 옛날 얘기를 하니가 그제야 권사님이 제 얼굴을 본 것이다. 그러면서 반갑다면서 어떻게 바쁜데 오셨느냐고 하기에 제가 그 여러 가지를 보고 속으로 웃었다. 그래서 제가 기쁘겠다고 물으니 너무 기뻐서 목사님도 못 알아봤다고 하더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기뻐서 그렇게 하더라. 우리가 다 부모가 아닌가? 자식들이 다 성공을 해서 결혼을 하면 기쁘겠조? 그런데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놈이 결혼을 하면 부모가 결혼식에서 웃음도 안 나오고 걱정을 한다. 전도도 마찬가지다. 전도를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되는 전도를 기뻐하신다.

♣ **교재 자료** ♣

1. 우리의 문제와 나약함을 공부할 수 있어야 다음의 응답이 옵니다.

- (1)마4:19
- (2)마11:28
- (3)갈2:20
- (4)빌4:10-13

2.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다른 계획으로 교회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 (1)한계 - 하나님의 능력 찾을 시간표(행1:1, 3, 8)
- (2)무능 - 하나님의 계획 찾는 시간표
 - ①렘넌트 7명
 - ②초대교회
- (3)시험 - 진정한 응답의 시간표

3. 개인화 운동의 축복 누리면 모든 문제는 응답

- (1)개인화
- (2)제자화
- (3)복음화, 교회화, 전도화

(The end)

(1)황금어장

▶황금어장이 어디냐? 그런데 지금은 자꾸 발전하다보니 황금어장이 따로 없다. 우리가 들어가는 데가 황금어장이다. 그래도 어장이 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전도시간표가 됐거나 하는 게 있다.

(2)지속할 팀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지속할 팀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열쇠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갔다 왔는데도 성공이 일어난다. 그러면 나는 무능한데도 되어진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캠프를 그냥 간다. 모르는 지역에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있는 교회나 아는 지역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할 열쇠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 바울 주위, 베드로 주위, 전도자의 주위에는 언제든지 지속할 팀이 붙은 것이다. 이것을 딱 만들어서 들어가야 한다. **지속 팀을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이냐를 보는 게 황금어장을 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황금어장이 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을 들어간다 하면 대학사역을 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황금어장이다. 그러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다.

▶**류목사- 3000군데 지교회**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3천군데 황금어장을 파고들기로 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시작하던 것을 지금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는 다른 거짓말은 잘 하는데 메시지 거짓말은 못 한다. 여러분이 자꾸 옛날 메시지를 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옛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옛날 메시지를 하는가? 이번에 개혁교단이 모이니가 단번에 옛날 것이 안 나오던가? 그건 개혁교단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 울산에 3천군데에 사람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다. 넣는 데는 목표가 두 가지 있다.

(1)올바른 지교회→ 전도운동만 하는 지교회

▶제가 보기로는 올바른 지교회를 안 하는데, 올바른 지교회. 전도운동만 하는 지교회. 지금 여러분의 지교회는 주로 보면 그게 아니고 무슨 구역모임 비슷하다. 아니면 목사 말 안 듣고 집 나가서 만드는 지교회 같은 것. 괜히 교인 한 명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아무 뜻도 없이 해보려고 하는 이런 지교회가 많다.

(2)팀 구성→ 교회 건축을 제대로 할 팀구성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팀 구성을 한다. 이 팀 구성이 뭐가 하니가 교회 건축을 제대로 할 팀 구성이다. 제가 지금 교회 건축을 제대로 할 팀 구성을 3천 군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여기에다 사명을 주려고 한다. 용돈을 줄여라. 밥값도 줄여라. 차 마시지 마라. 현금해라. 쓸데없는 돈은 다 쓰면서 우리는 현금을 안 한다. 재산을 털라는 말이 아니다. 양심을 드러야 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다 하지 않는가? 그런데 교회에만 안 한다.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인가? 세상천지의 오만 것은 다 하면서 교회에만 관심이 없다. 바뀌어야 한다. 바뀌는 방법 몇 가지를 가르쳐줘서 하

는 것이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것부터 했다. 저는 30군데를 뛰었는데 30군데에서 교회로 들어가는 헌금이 나왔다. 사실상 초창기 때 교회 헌금보다 많이 나왔다. 전도하는데 돈 든다는 것이 저는 이해 안 된다. 오히려 돈이 생긴다. 전도하는데 뭘 많이 투자한다고 하는데 투자될 게 없다. 이대로 그냥 간다. 오히려 생긴다.

▶전도전문팀 - 지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보고 이 눈만 떠버리면 조용조용히 교회 부흥된다. 이걸 하려고 하니 뭔가 조금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답이 나오지 않는가? 이것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전도전문팀이다. 전문이라는 말은 아무나 쓰지만, 이것만 제대로 하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전도전문 훈련이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앞으로 계속 지회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1)선발

▶지회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많은 훈련 받은 사람을 뽑아내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2)재생산

▶그리고 훈련 받은 사람을 계속 재생산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3)개교회

▶그리고 전부 이 사람들이 개교회 중심으로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신학원은 줄이고 신학원 교무과 손 놓은 사람들은 지회를 하라는 말이다. 그런데 아직도 못 알아듣는다. 지금 이거 안 하려고 난리다. 신학원을 그대로 하려고 하는데 신학원 하는 팀들은 놔두고 신학원 안 하는 사람들을 잡고 이걸 해야 하는 시간표다. ▶수천 명이 넘는 미전환 출신들이 버려져 있다. 수만 명의 신학원 졸업생들이 버려져 있다.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눈을 잘 떠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눈을 못 떠버리면 재산들을 그냥 다 내버리게 되는 것이다. 수만 사람을 졸업을 시키고 끄집어 내놓고는 그냥 놔두고 있다.

이걸 제대로 응답 받도록 세우자는 것이다. 이걸 프로그램이 아니다. 또 하나의 훈련 파트를 만드는 게 아니다. 진짜 응답 받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밖에 길이 없다.

▶그것이 교회 살리는 길이다. 교회가 살아야 목사가 살지, 교회가 죽는데 목사가 사는가? 아니 교회가 죽는데 어떻게 램넌트가 사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을 잘 보시고 눈을 뜨셔야 한다.

▶그리고 교회 안에 보면 좀 교회와 안 맞는 사람은 자꾸 자르는데, 자를 필요 없다. 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가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좀 튀는 사람이 있으면 자를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목사님의 수하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산다. 그러면 전부 발으로 바뀐다. 저는 심지어 뛰까지 했는가 하면, 완전 체계 정면 대결하는 팀들도 있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수용했다. 그 사람들은 제가 가기 전부터 원래 있던 할렐루야 팀이었다. 어떤 여자가 사람들을 찌르면서 하는 데 다니는 팀이 있었다. 원래 제가 오기 전부터 버스를 준비해서 타고 다녔다. 그래서 모여서 다섯 시간씩 여섯 시간씩 기도하는 팀이 있었다. 우리 훈련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신비주의 하는 팀이 있더라. 그대로 다 수용했다. 그래서 제가 장로로 세웠다. 장로로 세우니까 어떤 사람은 걱정이 되어서 저런 사람은 세우면 안 된다고 했다. 그것보세요 목사님이 저 사람을 다락방의 장로로 세워놓으니까 지금 비디오를 돌립니다. 무슨 비디오냐고 하니가 사람들을 찌르는 비디오를 돌린다고 하더라. 돌리면 어떠냐? 복음을 이길 프로그램은 없다. 결국은 2, 3년 안에 다 해결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우리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되었다. 원래 모여서 이상한 기도하던 팀들이 사명자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 전혀 없다. 그러니까 전부 문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교회는 안 될 것 같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

1.문제, 나약함 - 공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나약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걸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걸 공부할 수 없으면 교회생활 못 한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런 중에서 응답을 받으면 갈2:20절처럼 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응답을 받아야 빌4장에 있는 고백이 나온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이걸(지교회, 팀 구성) 살살 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많은 생각할 게 있다.

2.안 되는 교회 -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교회는 안 되는 교회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길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자기를 교회가 안 되는 교회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시간표다. 우리의 무능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표다. 우리에게 시험이 왔다는 것은 진정한 응답을 찾는 시간표다.

3.개인화 - 그리스도

▶그러면서 여러분이 꼭 하나 해줘야 할 게 있다. 개인화다. 목사

님들은 꼭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한다. 직접 못 하셔도 꼭 하셔야 한다.

▶개인화는 뭐냐? 옛날에 제가 어느 교회를 갔다. 청년 하나가 아이들을 몇 명 그룹을 이뤄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 김상도 목사님이 제일 먼저 제게 사인을 했다. 이상한 친구가 하나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보니까 청년, 대학생, 중고등학생까지 괜찮은 아이들이 붙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학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한 친구인데 성경공부를 하더라. 그래서 제가 보았다. 문제아라고 하면 무슨 성경공부를 하는지 보러 갔더니 문제는 아니고 강의를 잘 하더라. 신학적인 해석 같은 것은 틀리는 말은 그건 평신도이니까, 그런데 개인화를기가 차게 하더라. 그러니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 목사님들은 심방도 잘 안 하는데 매일 같이 건드린다. 우리는 그냥 껌테기로 하는데 이 아이들의 삶을 다 챙겨주더라. 제가 보니까 이 아이에게 뭐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슬슬 제자훈련을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원교회에 있는 박순필, 이재홍 장로들이 다 거기에서 나온 인물들이다. 교회가 엄청 부흥되었다. 딱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발악을 하는 것이다. 본색이 나오더라. 자기 기능이 약화되어 버리고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니까 그가 발악을 하는 것이다. 그때 이 사람들이 놀라더라. 아, 아니구나! 그때 그리스도로 개인화를 시켰다. 이걸 꼭 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전부 자기 성질, 자기 중심, 자기 입장, 자기 분위기, 자기 배경을 다 찾아내려고 한다. 그 정도 IQ같으면 세계복음화 못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화 시켜야 한다. 나를 나타내야만 된다고 생각되는 성격 같으면 그건 작은 인물이다. 그런 인물 정도면 경계 대상도 아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을 그리스도화 시켜주는 이런 작업을 해야 한다.

▶열매(교회)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는다. 틀림없다. 그러면 얼마나 편안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 우리가 되고 안 되고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게 된다. 지금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갱신이 안 되는 것 같다. 갱신이 안 된다는 말은 놓치고 있다는 말이다. 놓치지 마시고 빨리빨리 이 축복 속으로 들어 오셔야 한다.

▶지금 빨리 이 전도전문훈련원에서는 이 지회를 구성을 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을 교회화 시켜줘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손을 안 대도 될 때가 언제이나?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개인화 되어버리면 굳이 우리가 손 댈 필요도 없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저절로 oneness를 이루게 된다. 그걸 보고 교회라고 한다. 교회는 교회당과 다르다. 이게 교회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사실 어마어마한 말이다. 이런 구원 받은 백성들이 모인 것이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올해는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전도자다운 축복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 end)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인터넷총국	
① http://www.jcking.net ② http://www.rutc.com	
총 국 장: 김성호 목사 (☎011-505-5684)	
실무국장: 차동호 목사 (☎010-5375-9383 ✉3759383@paran.com)	
후원계좌: (국민은행) 682401-01-338981 차동호(인터넷총국)	